



#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429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1월 17일 (음력 12월 1일) 수요일

## “내가 빅맨” 靑-대통령 직속 정치적 직함 경쟁

6·13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빅 맨(Big-man)이 되기 위한 정치적 직함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선거용 감투를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타이틀도 엄연한 경쟁”이라는 두 가지 시각이 교차하고 있다.

16일 광주·전남 지역선거에 따르면 광주시장 후보자 10명 가운데 ‘대통령직속’이라는 직함을 지닌 입지지는 현재까지 2명에 이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민형배 지역발전위원회 국민소통 및 지역협력 특별위원회 호남위원장 등이다.

일자리 위원회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 ‘대통령직속·청와대 비서관’ 등 간판경력 강조

### “선거용 감투 남발” vs “타이틀도 엄연한 실력”

질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공식기구이고, 지역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구로, 지역고유의 자원과 잠재력을 활용해 지역주도 자립 성장기반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통령직속이다 보니 직책과 역할에 무게감이 남다르다.

경쟁 관계인 윤정현 시장은 유일한 현

직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있고, 강기정 전 의원과 이형석 민주당 시장위원장은 중앙당 최고위원을 지낸 경력, 양향자 민주당 광주서구를 지역위원장은 민주당 최고위원과 전국 여성위원장을 지낸 프로필로 내걸고 있다.

이병훈 민주당 광주 동남을위원장도 ‘전문재인 대통령 후보 광주 총괄선대본부장’을 대표 경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민 청장과 이 위원장은 ‘청와대 비서관’도 주요 경력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반면 최영호 남구정장은 ‘호남학생 반독재 민주화 투쟁연합 의장’과 민주화 투쟁으로 옥고를 치른 사실, 풀뿌리 지방자치에 오랜 기간 몸담아 온 경력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국민의당에서는 박주선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관 경력과 현직 국회부의장이라는 점을, 4선의 김동철 의원은 국민의당 원내대표 등 ‘국회 마당벌’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전남에서는 서삼석 민주당 영암·무안·신안 지역위원장이 중앙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에 전남 선임됐다. 통상적인 당직개편이지만 상설위원회는 대부분 현역 의원 위주의 위원장 임명이 이뤄졌은 관례에 비춰볼 때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선거 때면 이들 대표 직함은 민심의 향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여론조사는 물론 선거용 명함, 홍보 책자, 각종 발표자료에도 눈에 띄게 배치돼 표심 잡기에 활용된다.

대표 직함이 현직일 경우 되도록 출마 선언을 늦추는 것도 ‘직함 프리미엄’을 의식한 행보로 해석되기도 한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같은 직함 경쟁에 ‘선거를 앞두고 감투를 꺼주는 것 아니냐’는 시각과 또 다른 장외경쟁이라는 의견이 병존하고 있다.

지역선거 한 관계자는 “특정 선거구에서 지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거나 후보 스스로가 몸집을 키우기 위해 직함을 따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선거를 앞두고 ‘빅 맨’ 이미지를 심기 위한 전략적 행위로 본다”며 “지나치게 과하면 문제지만 그 역시 실력 아니겠냐”고 말했다.

최남규 기자



여수 구룡산 정상에서 바라본 ‘여수밤바다’

여수시 구룡산 정상에서 남동쪽을 바라본 여수시 구시가지 야경. 15일 오후 촬영한 사진은 왼쪽 중앙동 해변을 따라 해양공원과 거북선대교가 보이며 중앙은 장군도, 오른쪽은 돌산대교가 자리잡고 있다.

## “현역 프리미엄” 전남 지자체장들 ‘주민과의 대화’ 나서...정가 ‘술렁’

### 선거법 논란 선관위 문의 ‘조심’

6·13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전남지역 일부 시장과 군수들이 ‘주민과의 대화’의 갈에 나서고 있어 지역정부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일부 시·군은 선거법 위반 시비에 대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세부 상황을 문의하는 등 조심스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16일 전남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김성 장흥군수는 지난 12일부터 군민과 소통하는 ‘연두순방’을 시작해 오는 25일까지 읍·면을 돌며 ‘주민과의 대화’를 한다.

장흥군은 사전에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선관위의 감수까지 받았다. 평시와 달리 주민 홍보물을 배포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군정 성과와 올해 군정 사업 계획 등을 PT(프레젠테이션)로 대체했다.

주철현 여수시장 역시 해마다 연초에 해왔던 ‘시민과의 대화’를 이날부터 시작했지만, 선거법 위반을 고려해 양식을 바꿨다.

시가 주도하는 ‘시민과의 대화’는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선관위의 해석에 따라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주도토론회’ 형식으로 변경했다.

선거법상 선거일 60일전까지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이를 감안해 4월3일까지 27개 읍면동 순회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현재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구룡군 화순군수 역시 ‘주민과의 행복공감대화’를 하고 있다.

전남 선관위 관계자는 “단체장이 주민을 대상으로 군정성과 등을 보고할 수 있으나 홍보 인쇄물 등을 배포할 수 없다”면서 “주민과의 대화는 선거일 60일 전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직 시장과 군수들은 6월 지방선거 전 실시되는 당내 경선을 앞두고 현직의 최대 프리미엄인 주민과의 대화의 장을 통해 합법적으로 얼굴도 알리고 조직도 점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고 있어 경쟁 후보측은 긴장할 수 밖에 없다.

일부 경쟁자들은 혹시 있을지 모를 불법·탈법 행위에 대비해 동태파악에 나서 등 촉각을 세우고 있다.

지역선거의 한 관계자는 “주민과의 대화는 합법적인 범위에서 선거를 앞둔 현직 단체장이 누리는 최고의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상대 후보 역시 현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책미련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 책임지시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5일 가상화폐 대책 논란과 관련,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사실상 투기·도박이라고 규정해 시장에 커다란 충격과 혼란을 안겼다”며 “아무 조율이 없었다면 성급히 정책을 발표하면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지야 하고, 조율이 있었다면 청와대가 직접 책임지고 해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 의회에서 “시장 충격요인이 문재인 정부의 주특기인가 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안대표는 “더 근본적인 문제는 상황이 이 지경이 됐는데도 가상화폐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이라며 “금융위원회도 기획재정부도 법무부도 제각각 입장에서 정책을 내놓으며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아무런 입장표명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관련 인사들의 속세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자료사진=뉴시스



**진도개 테마파크** Jindo Dog Theme Park  
천연기념물 제53호

우리나라 토종개, 진도개의 공연과 경주를 보면서 진도개의 용맹함과 주인에 대한 충직함을 느끼며 진도개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진도개 공연 · 경주안내**

구분	평일(월~금)	토요일	일요일
장소	평일공연장	주말공연장, 경주장	
공연	10:00, 15:00	13:00	
경주	-	13:20	
진행	진도개사업소 훈련사	진도개 공연단 진도개 경주단	

**오시는 길!**

진도군청, 진도읍사무소, 진도공용터미널, 진도항토문화회관, 진도대교, 동외삼거리, 진도읍사무소, 진도항토문화회관, 진도공용터미널

도로명주소 | 전남 진도군 진도읍 성죽길 30  
내비주소 | 진도개테마파크  
진도개사업소 | 061-540-6306

자카용: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당진-군산-죽림JC-서영암IC 경유 남해안고속도로 부산-진주-통산JC-서영암IC 경유  
KTX, SRT: 서울-목포(2시간 30분 소요) 1일 30회 / 목포-진도(1시간 30분 소요) 1일 9회 ※ 목포-진도 버스 이용  
버스: 서울-진도(5시간 소요) 1일 4회 / 목포-진도(1시간 소요) 1일 22회